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황금동 옛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앞 총장로안길 심터에 함부로 버리고 간 껌조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 일대는 옷가게, 식당, 타로점 가게,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 작품 '투표' 등이 한데 모여있어 10대 등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거리다. /양세열 기자 bhj@kwangju.co.kr

이달초 폐관 광주 총장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리 방침

‘탈선의 공간’ 된 ‘추억의 공간’

19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총장로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 지난 8월 초 폐관된 학생회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려진 나무 틈새로 보이는 학생회관에선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건물 외부는 빈방·캔·과자봉지·담배꽂이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남·여 청소년 5명은 학생회관 뒷골목 펜스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40~50대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쳐다보자, 이들 청소년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노려보았다.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대거 몰리면서 상가 주인들에겐 이 일대가 학교폭력 등 탈선을 유발하는 우범지역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경계 1호로 쫓힐 정도이다.

학생회관 인근에서 타로점을 하는 정모(여·61)씨는 "3일 전에는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 두 명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데도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담배 껌조를 보란 듯이 버린다"고 말했다.

최근 문을 닫은 학생회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일대가 범죄와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정적

학생회관 신축 이전 이후

사후관리 제대로 안돼

건물 외부 쓰레기 넘치고

청소년들 흡연에 싸움까지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

포장마차 불타는 등 피해도

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시와 학생회관 이설협약을 체결한 뒤 광주시 동구 황금동 학생회관(연면적 5256㎡·1590평)을 전면 폐쇄했다.

신축된 학생회관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인근 부지로 옮겨졌으며 다음달 초 공식 개관될 예정이다.

시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권을 넘겨받은 뒤 이 부지에 국·시비 113억 원을 들여 시립청소년직업 체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내년 초 착공, 2016년 1월 개관된다.

하지만 학생회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일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시는 애초 이 같은 상황에 대비, 건물 주변에 CC-TV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해당 업체가 단기 계약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CC-TV 설치 계획은 철회했다.

학생회관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 건물 주변에는 평일·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일부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등 탈선장소로 바뀌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포장마차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는 등 상가 주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시가 설치한 건물침입 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이외에도 상주 직원을 두는 등 학생회관 건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시청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수시 점검하는 것 외에는 건물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어디로 가나... 평화맨션 주민들 길거리서 추석보낼 판

임시거처 우산초 강당

개학 앞두고 비워줘야

“당장 길거리로 나왔을 판인데... 올해 추석엔 조상님 뵈는 날이 없네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9월 8일)을 앞둔 1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입주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다음달 1일 개학을 앞둔 우산초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임시거처인 우산초등학교 강당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맨션 B동 입주민 60세대는 지난 달 24일 건물 지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산초교 대강당 등

지에서 지내왔다.

문제는 입주주민들의 임시거처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이주(3세대), 도시공사(21세대), 전세·월세·친인척집 등 자체해결(36세대) 등 방식으로 임시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북구는 입주주민들이 평화맨션 인근 원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임대용자) 70%(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어느 해보다 쓸쓸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입주주민들은 임시거처에서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하루도 편히 자낼 날이 없다. 특히 임시거처에서 생활한 지 한 달여 가까이 되면서 구호물품 지원 등 온정의 손길도 사실상 끊긴 상태. 지난 24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개인·단체의 구호물품은 31종·1439개. 이중 이달 들어 지원된 물품은 수박·복숭아·포도·화장지·종이컵 등 6개 중·100개가 고작이다.

입주민 김모(43)씨는 “당장 이주할 집 문제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추석을 쇠든 친척집에서 지내든 할 것 아니냐”라며 “이번엔 집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집없는 이에게 명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군검찰 재청구 방안 검토

“강제추행·폭행 뇌주기 수사”

군인권센터는 의혹 제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말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겨냥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뇌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숙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계급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6사단은 군인권센터의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목포항만청, 특정단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위법”

광주지법 “승인 취소” 판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해양대학교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게 목포항 내에서 공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및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타인 승인 신청’을 허가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일보 6월 30일자 6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두 기관의 공동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교육장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9일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의 타인 공동사용 승

인 취소’ 소송과 관련, “항만청이 목포해양대학교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 타인 승인 신청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타인 점·사용 승인 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위법하게 목포해양대의 한국수상레저협회와의 공동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현행 법규상 12노트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목포항 내 공유수면에서 15노트 이상 속도로 운항할 것을 요구하는 보트 조종 시험 및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포해양대와 (사)한국수상레저협회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사업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왜 무시해” 저녁마다 아내에 폭력



○...아내와 저녁식사 중 자신을 무시했다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져 아내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 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북구 A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36)에게 지름 30cm 크기의 세숫대야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김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아내가) 돈 없으면 집에 앉천히 있을 것이니 나한테 잘 보여도 모자를 판매에 돈을 쓰고 들어왔느냐고 핀잔을 주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좋은
- ★ 사무실 적합, 전세 올수리 시세/분양가-4억
-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좋은
- 전세 올수리, 주거겸/사무실 겸용
- ★ 시세/분양가-2억
-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 매매-6500만원
-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010-3605-5000

콘도/별장/펜션
문의, 010-3605-50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 전기, 수도, 가스 개별
-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 화개장터, 생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
- 56평 - 2억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입합니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대자공인중개사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입합니다.

★ 급매물 접수합니다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